

강행 처리 vs 총력 저지...패트 수사움 돌입

법안 본회의 부의 D-7
與, 해외 출장 자제령 등 표 단속
한국당, 4당 공조 복원 저지
또 동물 국회 될까 우려



‘집중’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간 협상이 계속 곁돌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각각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9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해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의 표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협력했던 군소 야당과의 접촉도 전전화하면서 공조 체계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사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을 시사한 것을 파고

들면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협조 체계가 복원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공수처법과 관리 선거법 개정안 문제에는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230대 70, 240대 60, 250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의 해외 출장 자제령에 대해서도 “남치기 5분 대기조나”면서 맹공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법안 저지 정당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당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선거법 부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여서 최악의 경우, 또다시 ‘동물 국회’가 재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군소3당 ‘4+1 협의’ 촉구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통과 전략 마련 부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일주일여 앞둔 19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정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던 이들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공조하는 한편 자당의 이익과 최대한 부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찾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구성해 과반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한국당을 제외

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案)이 기본이다. 이외에 의석수 비율을 ‘200대 100’, ‘240대 60’, ‘250대 5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석수 변동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평화당은 박주현 의원이 제시한 ‘240대 60’안이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과반 통과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농촌 지역구 의석수가 지나치게 많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5당 협의체를 구성,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내일 방미

방위비 협상 한국 입장 전달... 4박5일 초당적 외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 ‘초당적 의회 외교’에 나선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20일 오전 워싱턴DC로 떠나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들은 방미 기간 미 상·하원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국 측의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원에서는 찰스

그래스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과 관련 논의가 예정되었다. 하원에서는 제임스 클라이버 원내 총무(민주당),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미국 정부 측과도 해법 모색에 나선다. 원내대표들은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반환하는 한편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장인 미국내 한미우호 협력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도 방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47년만에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숙원 풀었다

여야 비쟁점법 89건 의결...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빨간불’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하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며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핵심 법안들도 본회의의 상정조차 되지 못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1건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6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운영됐던 소방공무원이 47년 만에 내년 4월부터 소

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인 만큼 사실상 국가직 전환인 셈이다. 또 소방공무원 보건의료 복지 기반 강화 등 6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유통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시 지원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문제로 꼽혀온 복잡한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 기한도 단축된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의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입법도 여야 대치로 본회의의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여서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4개 시·도지사, 대법에 이재명 탄원서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참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전국 시·도지사 탄원에는 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법대위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받은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9일 박 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시·도지사 탄원에는 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법대위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받은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